

코로나19 재확산에 국회도 비상

2019 회계결산 8월 임시국회 시작...회의 축소·비대면 전환 등 방역 강화 조치

2019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8월 임시국회가 18일 시작됐지만 2차 대유행 기로에 놓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조짐에 국회도 비상이 걸렸다

국회는 18~21일 상임위원회별 심사, 24~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회의 등을 통해 전년도 결산을 심사한다. 결산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내달 4일 열릴 예정이다.

또 8월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수해 대책을 위한 4차 추경 편성 여부,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주요 현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오는 19일에는 김대지 국제정장 후보자

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8월 국회는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며, 내달 1일부터는 100일간 일정의 정기국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9월 정기국회까지 보름 남짓의 짧은 회기의 국회이지만 해결해야 할 민생현안은 산적해 있다"면서 "민주당은 코로나 재확산을 저지하는 방역대책, 신속한 수해복구 지원, 2019년도 정부 세입·세출과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 심사를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3대 민생과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또 "재확산하는 코로나19를 저지하기 위해 방역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재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어렵게 쌓은 K-방역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고 경제

회복의 모멘텀도 상실될 우려가 크다"며 "코로나 재확산 저지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은 일정을 축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등 임시국회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섰다.

민주당은 8월 임시 국회 개원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었던 이날 의원총회를 연기하고, 온라인 메시지를 통한 의견 개진으로 대체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 언론 취제도 풀단(취재 공유 그룹)을 구성해 소수 인원만 참석하도록 했다. 참석자들도 마스크를 쓴 채 한 자리씩 떨어져 앉은 거리 두기를 실천했다.

내달 1일 100일 일정으로 출발하는 정기

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의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투표까지 가능한 상임위 영상 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국회 사무처에 요청했다.

새 지도부를 뽑는 8·29 전당대회 개최에도 비상이 걸렸다. 잠실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치러질 예정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선 실내 50명 이상 대면 모임이 금지되기 때문에 비대면 개최 방법을 검토 중이다.

미래통합당에선 당장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날 대구 방문 일정을 축소 조정했다. 당초 대구 엑스코에서 지방의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었던 김 위원장의 특별 강연을 취소하고 유튜브 생중계로 대체했다.

내행 인원이 대구가 지역구인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로 최소화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5·18법 당론 추진...통합당 협조 관심

민주당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및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최근 5·18 관련해 정강정책에 명문화시키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협조 여부 등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5·18 관련해 당론화 작업을 통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소명, 유가족 지원에 관해서 당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호남 구에 행보를 벌이고 있는 미래통합당에도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진정성을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용빈(광주 광산갑) 원내부대표는 이날 "5·18과 민주화정신을 담겠다는 미래통합당의 정강정책은 아직까지는 초안

일 뿐이다"면서 "미래통합당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에서 인준을 받고 통과되어야 확정이 될 것이다. 꼭 통과돼서 미래통합당의 행보가 시능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증명해 보이기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원내부대표는 통합당에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통합당을 향해 ▲5·18 민주화운동 왜곡·비방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5·18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협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5·18 기념식 불참 등 광주 관련 실정 사과 등을 요구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5·18에 대한 사죄라는 것이 일기장에 한 줄 쓰고 마는 자기 반성이 아니다. 책임 있는 제1야당이 하는 반성이라면 제가 제안한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사죄와 입장을 밝혀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올 겨울 또는 내년부터 지자체 간 남북협력 시작 기대”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광주 남구와 업무협약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은 18일 “올 겨울 또는 늦으면 내년부터는 지자체 간 남북협력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이사장은 이날 오후 광주 남구청사에서 열린 남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업무협약식에서 참석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의미있는 지자체 간 협력사업이 안착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시 한 번 한반도 국운상승의 기회가 있다면, 단언컨대 그것은 남북 화해 협력이다”면서 “특색있는 교류협력 사업으로 이어지면 남북 화해 협력의 길이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교류 협력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흔들리는 정치 환경을 넘어서는 신뢰 관계가 쌓일 것”이라며 “이러한 신뢰 관계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나해 10월 말 통일부가 지자체별 인도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고, 신임 통일부장관도 지자체 책임 아래 협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재단도 남구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동반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남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협약

- 남구·북측 1개 도시 항구적 협력 추진
- 농업·산림·보건 등 5~10대 중점협력사업 선정
- 경제문화협력재단 전략기획위 자문 등

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구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이날 협약식을 통해 남구와 북측 1개 도시와의 항구적 협력 추진 '농업·산림·보건 등 5~10대 중점협력사업 선정' '경제문화협력재단 전략기획위 자문' 등을 약속했다.

앞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이날 오전 순천시청에서 허석 시장과 '새롭고 지속가능한 남북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남북한 공동 번영과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협력, 시민참여의 원칙을 바탕으로 북측 1개 도시와의 협력을 이룬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순천시는 북한에 있는 순천시사 인구 30만명에 교육과 철도의 중심지라는 데 주목하고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임종석(왼쪽)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이 18일 오후 광주 남구청 회의실에서 김병내 남구청장과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도시 간 지속가능한 교류 협력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 남구청 제공>

민주, 전광훈 사태 맹공...통합당 '선긋기'

“통합당 의원 집회 참여 대국민 사과” 통합당 “유치한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일부 보수단체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에 미래통합당 인사들이 참여한 데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지만 통합당은 선을 그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통합당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 금지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어떤 지침도 내리지 않았다”며 “8·15 집회를 사실상 방조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 목사가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은 국가 문란의 심각한 범죄”라며 “통합당은 전 목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비호한 당내 인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해당 집회에 참석했던 통합당 소속 홍문표 의원, 김진태-민경욱 전 의원, 유정복 전 인

천시장을 거론하면서 “통합당의 이런 행위는 명백히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에는 통합당이 전 목사와 선을 긋는 척 하면서 광화문 집회를 통해 보수세력 결집을 모색하는 것이냐는 의문이 자리잡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야당 책임론’에 대해 “유치한 정치”라고 비판하며 단호하게 선을 긋는 태도를 보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대해 “스스로 방역 준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나 그건 그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라며 차던막을 쳤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메시지는 여전히 새겨들어야 한다”면서 “방역 측면에서 보면 잘못된 것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통합당 김종인 오늘 광주행 ‘호남 메시지’ 주목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광주를 방문해 ‘호남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통합당은 최근 5·18 관련해 정강정책에 명문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는 등 호남 구애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통합당은 “김종인 위원장은 19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추모담화 등을 한다”며 “특히 이름없는 희생자가

지 잊지 않겠습니다”는 의미를 담아 행보 자묘역 헌화도 예정돼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비상대책위원장 기자회견을 통해 호남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5·18민주광장 분수대를 찾고, 이용섭 광주 시장과의 면담,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과의 간담회 등을 갖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매매 물건	경매 물건
<p>건 물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p> <p>건 물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p> <p>의료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p> <p style="text-align: center;">"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p>	<p>공장 ▶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 : 12029㎡(3638.77평) 건물 : 1929.992㎡(583.823평) 감평가 : 2,054,798,910원 최저가 : 920,550,000원(45%) 유찰 3회</p> <p>공장 ▶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여동리 토지 : 5004.7㎡(1513.9평) 건물 : 3867.85㎡(1170평) 감평가 : 3,600,859,200원 최저가 : 2,016,481,000원(56%) 유찰 2회</p> <p>공장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 : 5388.4㎡(1630평) 건물 : 622.57㎡(188.3평) 감평가 : 5,106,825,160원 최저가 : 3,574,778,000원(70%) 유찰 1회</p> <p>공장 ▶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토지 : 18875.5㎡(5709.8평) 건물 : 6386.82㎡(1932평) 감평가 : 5,994,297,460원 최저가 : 4,196,008,000원(70%) 유찰 1회</p> <p>공장 ▶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토지 : 10323.1㎡(3122.7평) 건물 : 1155.94㎡(349.7평) 감평가 : 1,892,743,280원 최저가 : 1,324,920,000원(70%) 유찰 1회</p> <p style="text-align: center;">"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p>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